

금리, 불안이 응집되는 중

“ 추석 연휴 사이 미국 금리 급등. 미국채 10년 금리는 연휴 중 5.2%를 상회했고, 30년 금리는 5.5%를 상회하며 많게는 20bp 이상 급등했음. 금리 급등의 이유는 1) 경제지표 개선 2) 국제유가 상승 3) 미 재무부 바이백에 대한 실망으로 새로운 재료는 아니었음. 기존 악재의 연장으로만 설명하기에 금리 급등폭이 과한 편. 기본적으로 투자심리 훼손에 따른 투매와 신규 자금 유입 축소가 강해지면서 금리 변화가 더욱 심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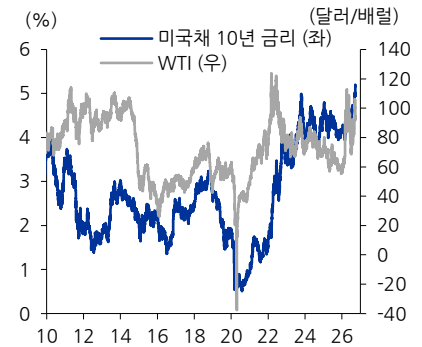
“ 우선 마이란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은 기본적으로 금리 상승과 기준금리 인상에 가장 직접적이지 않은 근본적인 요인임. 현재 시장의 불안한 심리를 가장 잘 보여준 재료는 현지시간 23일 발표된 S&P 글로벌의 종합 PMI 상승. 본 지수 발표 후 금리 본격적으로 상승. 헤드라인 지수의 예상치 상회 및 62개월 만 최고치 기록과 하위지수 중 신규주문, 가격지수 급등으로 경기 호조와 추가 인플레이 가능성을 동시에 확인했기 때문. 본 지수가 평소 금리 변동에는 거의 영향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채권시장의 민감도가 매우 높아져 있다고 보여 짐.

“ 시장의 취약함을 가장 자극했던 것은 미국 재무부의 바이백 대응. 미 재무부, 24일 시행된 잔존기간 20~30년 장기채 바이백 한도 금액을 60억달러로 공고. 이는 2주 전 발표한 10~20년 구간의 한도와 동일. 당시에도 규모가 기대에 못 미쳐 실망감에 금리 급등했는데, 또 다시 동일한 한도를 발표하면서 장기금리 재차 상승. 심지어 이번 입찰에 100억달러가 넘는 주문이 들어왔지만, 실제로 재무부가 사들인 금액은 40억 7,800만달러로 최대 한도에도 한참 못 미치면서 금리 상승폭 확대. 최근 베센트 재무장관의 금리 안정화 언급과 달리 액션은 매우 소극적으로 나타나면서 실제로 재무부의 금리 안정 의지가 낮다는 실망감이 강하게 반영됐을 것으로 보임. 당분간 시장 관심이 재무부의 한도와 입찰 규모 등 제도적인 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바이백 입찰 때마다 금리 변동성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 다음 바이백은 10월 1일, 대상은 잔존만기 10~20년 만기구간 장기채.

“ 종합하면 현재 미국 금리 상승은 1) 기존의 국제유가 상승 발 인플레이션 우려에 2) 예상을 계속 상회하는 성장에 따른 실질 금리 상승 3) 재무부의 대응 실패가 합쳐진 결과. 이를 기반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 문제. 고금리와 AI 거품 등 논란에도 지표가 예상을 꾸준히 상회한다면, 인상이 단순히 전쟁 때문만이 아닌 경기 대응적 성격도 강해질 것이라는 불안은 계속 고조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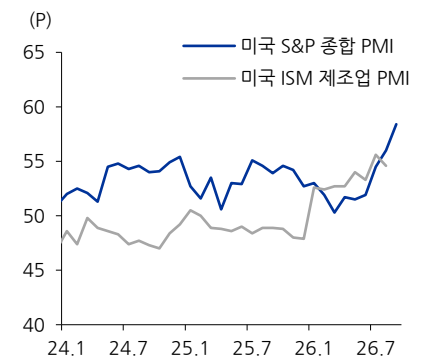
“ 미국채 장기물의 캐리 매력은 높아졌지만 시장의 극도의 변동성과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캐리만을 보고 진입하기에는 중장기적인 시간적 여유가 있는 투자자가 아니라면 리스크 관리가 아직 필요한 시기.

국제유가 움직임에는 여전히 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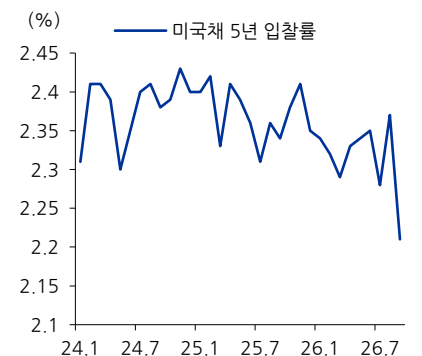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평소 중요도가 떨어지던 지표까지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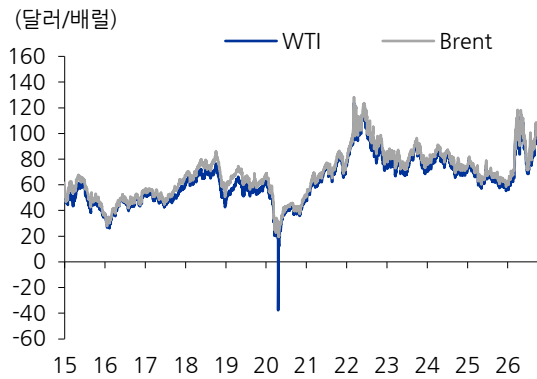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미국채 5년물 입찰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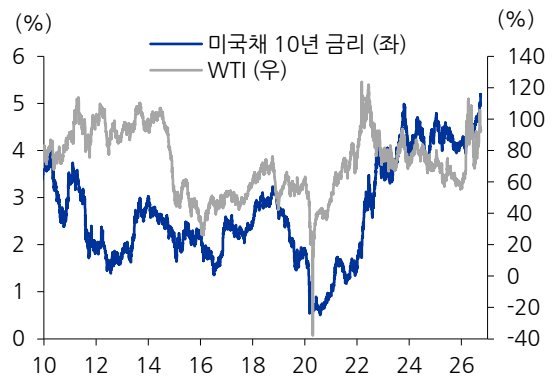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미국채 10년물 5.2%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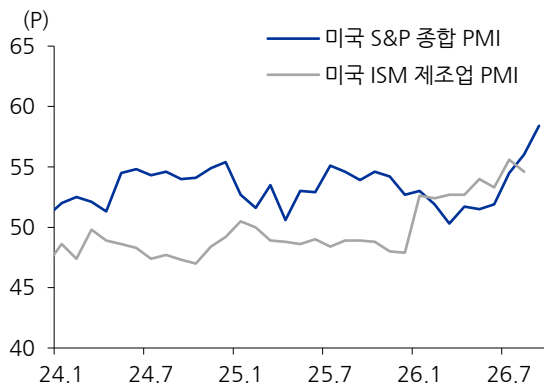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국제유가 연동이 기본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평소 중요도가 떨어지던 S&P PMI까지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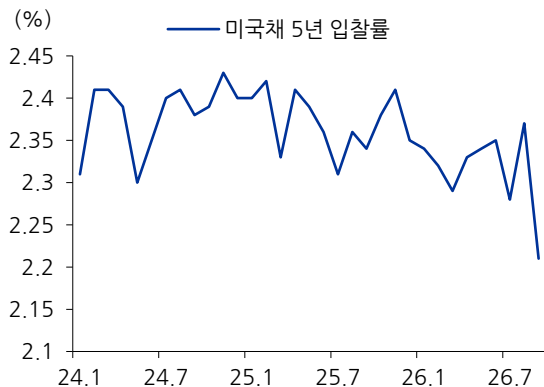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꾸준히 예상을 상회하는 미국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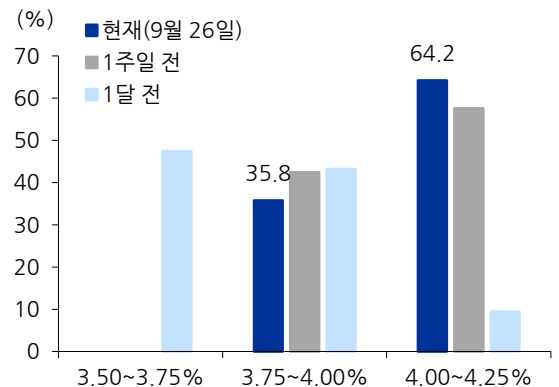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미국채 5년물 입찰도 부진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연준 인상, 더 오래 & 더 높이 될 수 있다는 불안



자료: CME Fed Watch,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